

광주대 박사과정 몽골 유학생, 넷째 출산 '경사'

광주대학교 (총장 김동진)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서박사과정 중인 몽골 유학생이 넷째 아이를 출산했다. <사진> 유학생 잠양 어트경수령 (41) 씨는 최근 넷째 아이를 출산하고 행복의 의미를 지닌 '아즈자르 갈'이라고 작명했다. 또한 유학생의 출산 소식을 접한 생활관 (관장 강현승)은 육실과 주방 등 편의시설이 완비된 1인실 보금자리를 특별 제공해 산모와 신생아의 위생과 안정된 산후조리를 돕고 나섰고, 국제협력처(처장 이기표)는 육아용품과 생활필수품을 전달하는 등 대학구성원들의 온



정의 손길도 잇다르고 있다. 잠양 어트경수령 씨는 "총장님과 생활관, 국제협력처 등 대학 모든 구성원의 관심과 배려로 타국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출산과 육아,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돼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한국 전통문화탐방



호남대학교 대학원 (원장 김덕모)은 지난 11일 곡성과 순창 일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진> 유학생들은 첫 번째 일정으로 곡성향교에서 향교의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배우고, 한국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하는 '워킹맨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어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과 발효테마 파크를 탐방했다. 이

곳에서 유학생들은 고추장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 식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경험을 쌓았다. 또한, 순창장류축제에 참가하여 다양한 장류 제품을 시식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주인영 대학원유학생지원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염홍섭 서산 회장 별세



염홍섭(사진) ㈜서산 회장이 지난 13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염 회장은 1974년 ㈜서산콘크리트를 창업한 이후 ㈜성암, ㈜성암아스콘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며 50년간 경영해 왔다. (사)한국경영서학회로부터 장영경영자대상을 받았고, 조선대에서 경영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염 회장은 지난해 7월 조선대 총동창회관 건립 기금 10억원을 쾌척했다. 조선대 발전에 애정을 가져 지난 2002년 발전기금 3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 노후시설 교체 등을 위해 1억원, 2015년에는 총동창 장학회관 건립 기금 5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염 회장은 지난 2014년 3월 전남대에도 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빈소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실(1분향소)에 마련됐다. 발인은 15일이며, 장지는 전남 장성군 진원면 선영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해양에너지, 제대군인 고용우수 기업인증 현판식



광주지방보훈청 (청장 하성일)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최근 ㈜해양에너지 (대표이사 정희)에서 '2024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고용우수 기업인증'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 광주-전남 권역 가정과 산업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해양에너지는 2015년 광주 제대군인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제대군인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hb@

강형근 초대 화순전남대병원장, 영상의학회 공로회원에

강형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초대 원장이 '대한영상의학회 공로회원 (KSR Gold Medalist)'으로 추대됐다. 강 원장은 대한영상의학회 발전과 의학발전 공헌,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8회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대한영상의학회 8번째 공로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사진> 강 원장은 1977년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35년간 전남대의대와 전남대학교병원에 재직했다. 또한 20여 편의 전공 서적 집필에 참여하고 2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왕성한 연구 활동을 펼쳤으며, 우수한 전문의 양성에도 힘썼다. 특히 최첨단 영상 장비 조기 도입을 위해 노력해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개인준비단장과 초대병원장으로서 특성화 전문진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자리



매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강형근 원장은 대한부영상의학회 회장과 대한초음파의학회 회장으로 학회의 발전을 주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김재봉 광주신세계안과 원장

ICL 수술 5000 사례 달성



김재봉(사진) 광주신세계안과 대표원장이 '안내렌즈삽입 (ICL) 수술 5000 사례'를 달성했다. 김 대표원장은 지난 2002년에 지역 최초로 ICL 수술을 시작했으며, 올해까지 5년 연속 '베스트 ICL 센터'로 선정됐다. 김 대표원장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ICL 및 알티플러스, 알티산, 알티플러스 등 7가지의 렌즈삽입술이 가능한 전문의로 호남에서 가장 많은 ICL 렌즈삽입수술을 기록, 렌즈 개발사인 미국 'STARR Surgical'로부터 5000례 달성 인증패를 받았다. ICL 렌즈삽입술은 근시 환자의 시력 교정을 위해 사용되는 유수정제 인공수정체로, 각막과 수정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눈 속의 수정체 앞에 삽입해 시력을 교정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렌즈이다. ICL은 30년 이상 검증된 인체에 가장 친화적인 소재인 콜라머 재질로 만들어져 삽입 후에도 눈에 부담이 없고, 기존 렌즈보다 광학부가 넓어져 동공 확대 시에도 빛 번짐 없는 선명한 시력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김재봉 원장은 "광주 신세계안과는 개인 맞춤형 시력교정술을 시행하여 개선된 수술 결과를 제공하고 시력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TV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출력(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결혼하자 맹꽁아(재)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감무쌍 용수정(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30KBS 뉴스 930	30KBS 뉴스 930	30 일일드라마 스캔들(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닥터 365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헬로키즈 TV생물도감	00 제328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05 동행(재)	05 동행(재)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15 헬로키즈 체육교실(재) 30 톡톡톡 꼬모 새로운 탐험	
00 KBS 뉴스 12	00 KBS 뉴스 12	35 신상출시 편스토랑 스페셜	00 12 MBC 뉴스 25 MBC 네트워킹특선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전국 TOP 10 가요쇼(재)
00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동네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동네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2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0 KBS 뉴스 10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00 KBS 뉴스 10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00 KBS 뉴스타임 15 월24 45 출동! 유혹구조대(재)	55 기분 좋은 날	00 제328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00 사사건건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어린이 동물티비(재)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이경규의 경이로운 습관(재)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00 모양새 친구들 15 다이노 파워즈 3 30 꼬마아사 쿵도령 4	10 트로트 클라스 3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00 6시 내고향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남도 탐구생활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740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740	30 2026 FIFA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대한민국> 이리크	05 용감무쌍 용수정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30 결혼하자 맹꽁아	30 결혼하자 맹꽁아			30 KBC 8 뉴스
00 KBS 뉴스 9	00 KBS 뉴스 9		00 지구를 닦는 남자들	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00 시사기획 창 50 KBS 뉴스라인W	00 시사기획 창 50 KBS 뉴스라인W	10 스모킹 건	20 PD수첩	20 틈만 나면
30 KBS 미래 인구포럼	30 KBS 미래 인구포럼	10 아이 러브 스포츠 35 수목드라마 개소리(재)	20 100분토론	
40 영상앨범 산(재)	40 영상앨범 산(재)	40 KBS 재난방송센터	45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재)	20 도시락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8:1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3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9:20 고향만국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귀하신 몸	19:50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앙코르 특집방송 - 문학기행
07:00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가을이 오면, 감성 몽골 -이래서 오지, 흠스골>
07:15 모두 함께 부스누!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21:35 한국기행 <오! 강해영 2부 해남에 가련>
07:30 슈퍼월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21:55 건축탐구 - 집
07:45 메탈카드봇 S강철의 귀환	15:1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22:50 EBS 다큐프라임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24:40 EBS 비즈니스 리뷰
08:00 당동댕 유치원	15:55 불룩스	
08:20 한글용사 아이야	16:10 당동댕 유치원(재)	
08:3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16:30 페파 피그	
08:50 샤샤 앤 마릴로	16:40 마사와 곰	
09:20 자이언트 팽TV	16:55 슈퍼월스 일렉트릭 히어로즈(재)	
09:40 박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2	17:10 한글용사 아이야(재)	
10:30 한국기행	17:40 메탈카드봇 S강철의 귀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5일 (음 9월 13일 壬子) ☎ 010-9790-8237

<p>子</p> <p>36년생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미련 없이 행동하는 것이 합당하다. 48년생 유기적인 관계가 설정되면서 발전을 열 것이다. 60년생 변화의 조짐이 예상되니 철저히 대처하라. 72년생 목표를 좀 더 높게 설정해도 무방하다. 84년생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차치해도 무방하다. 96년생 자שה히 알지 못한다면 나서지 마라. 행운의 숫자 : 15, 88</p>	<p>午</p> <p>42년생 규모와 상관없이 설정하는 것이 옳다. 54년생 불합리한 판도이니 벗어나야만 한다. 66년생 일회성비가 수시로 교차하는 국면이니 조심해야겠다. 78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일 필요는 없느니라. 90년생 구태를 청산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도 참으로 좋다. 02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느니라. 행운의 숫자 : 00, 72</p>
<p>丑</p> <p>37년생 어떻게 처세하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된다. 49년생 선택하기가 참으로 난감한 입장이 되겠다. 61년생 합리적으로 도모한다면 불평함이 사라지리라. 73년생 원래의 구도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재충전의 필요가 있다. 85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니라. 97년생 마무리가 좋으면 성취하는 바가 많으리라. 행운의 숫자 : 28, 69</p>	<p>未</p> <p>43년생 절제 했을 때 진정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55년생 접할 기회가 없어서 몹시 생소할 것이다. 67년생 활용란 다면 가장 절실한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다. 79년생 묵연에서 얻어낸 수레를 보는 것에 비유할 만하니 알아서 처신하라. 91년생 도약을 이끄는 새로운 기운이 보인다. 03년생 보편적 가치가 기준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1, 92</p>
<p>寅</p> <p>38년생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음을 알라. 50년생 과감하게 실행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62년생 심오하고 미묘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일지에 놓인다. 74년생 즉흥적인 조치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하라. 86년생 드디어 희망적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니라. 98년생 소신껏 처리하라. 행운의 숫자 : 17, 84</p>	<p>申</p> <p>44년생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 56년생 주저하지 말고 확실하게 붙잡아 두는 것이 유의할 것이다. 68년생 준칙은 고수하되 융통성을 발휘하라. 80년생 허나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변화할 시도해보는 것이 낫다. 92년생 파격적인 조처를 해야 할 때이다. 04년생 참신해야 된다. 행운의 숫자 : 10, 99</p>
<p>卯</p> <p>39년생 때가 이르니 부자연스러움 수밖에 없다. 51년생 상대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 63년생 때가 아니니 집착일랑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마땅하다. 75년생 열린 마음이 있어야 새로운 길을 잡는 법이다. 87년생 분명히 이행하여야 향후의 처세에 지장이 없으리라. 99년생 적극적이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02, 81</p>	<p>酉</p> <p>45년생 조연을 참고하는 것이 상책이다. 57년생 일의 선수를 정한 다음에 중점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라. 69년생 취득하느냐 상실하고 마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81년생 다양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속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다. 93년생 타격을 받지는 않으니 무시해도 된다. 05년생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35, 98</p>
<p>辰</p> <p>40년생 호사다마하는 세상의 이치를 알라. 52년생 조건이 주어졌을 때 확보해야만 한다. 64년생 생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76년생 본전만 챙기더라도 선택한 것으로 자기 위안해도 된다. 88년생 상승하는 대기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00년생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42, 97</p>	<p>戌</p> <p>46년생 성취를 위한 비판은 활력소가 되는 법이니 대세에 순응하는 것이 낫다. 58년생 순풍에 돛을 달고 바다로 나아가는 위상이다. 70년생 내버려 두어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형상이다. 82년생 예기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94년생 기본적인 이치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06년생 판세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23, 82</p>
<p>巳</p> <p>41년생 미루어 왔던 것을 진행하기에 시의적절하다. 53년생 적합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안정 궤도로 달린다. 65년생 압박하였으니 확실한 준비 태세를 취해야겠다. 77년생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묵묵히 실행해 나가면 향후의 발전은 명백하다. 89년생 느낌으로 판단하다가는 실수하리라. 01년생 생직접 모색하는 것이 제일 낫다. 행운의 숫자 : 39, 63</p>	<p>亥</p> <p>35년생 좀 더 탄력적으로 조응한다면 쉽게 유리한 점을 획득할 수 있다. 47년생 대체로 승류를 타게 되지만 변수도 보인다. 59년생 복이 지나치면 도리어 재앙으로 비화되는 법이다. 71년생 극상의 정점에 와 있으니 완전히 몰입하라. 83년생 일관된 소신이 있다면 목적을 달성하리라. 95년생 구유일모요, 천재일우의 호기리라. 행운의 숫자 : 26, 65</p>